

# 2023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

## - 목 차 -

I. 조사 개요 .....	1
II.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.....	2
1. 종합 실적/전망 .....	2
2. 부문별 실적/전망 .....	3
III. 기타 조사 .....	4
1.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 및 영향 요인 등 .....	4
2. 코로나 사태 전·후 수출 변화 .....	6

2023. 07.

# I. 조사 개요

## 1. 조사 목적

- 지역 제조업체의 해당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

## 2.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23년 5월 31일 ~ 6월 13일
- 조사대상 : 대전상공회의소 관할지역 내 업종·규모별 추출 표본업체
- 조사방법 : 표본업체에 대한 팩스 및 이메일 조사

## 3. 조사 내용

- 체감경기 및 경영환경 실적/전망
-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 및 영향 요인
- 올해 하반기 경영실적 대내외 리스크 요인
- 코로나 사태 전·후 수출 품목 및 물량 변동 등

## 4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; Business Survey Index)

- 조사 대상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전분기와 대비해 ‘호전’, ‘불변’, ‘악화’ 등으로 표시하게 한 후, 이를 지수화함
-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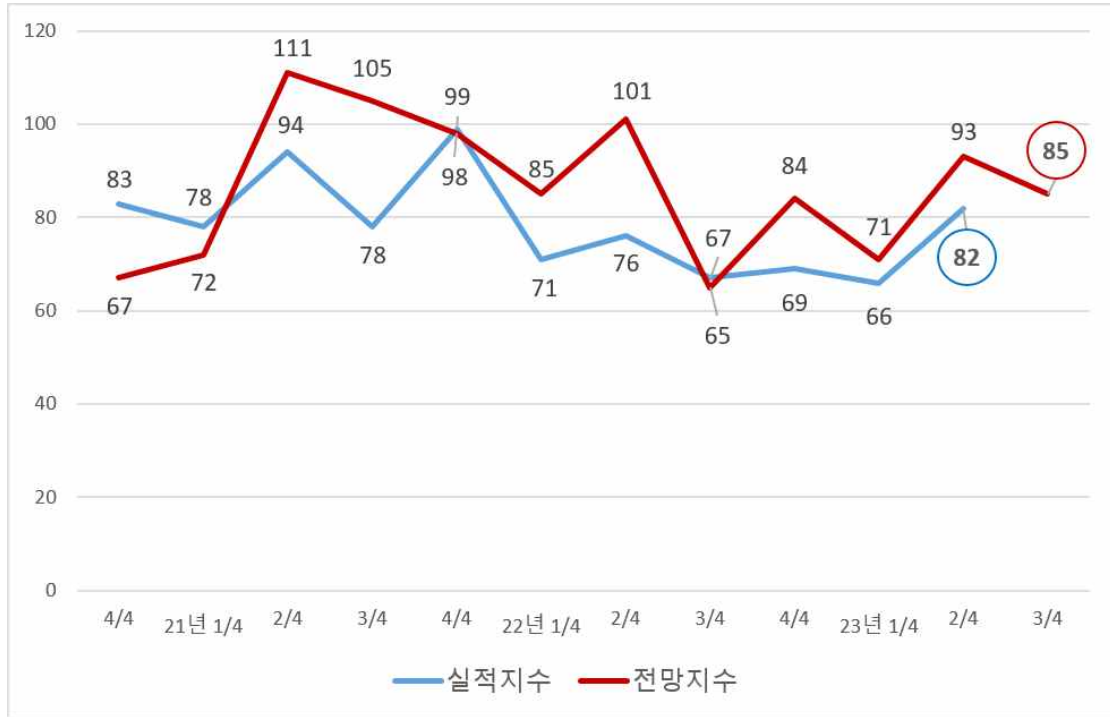
$$* 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} = \frac{\text{긍정적 응답업체 수} - \text{부정적 응답업체 수}}{\text{전체 응답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$$(0 \leq \text{BSI} \leq 200)$$

- ※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는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 이상의 경우 해당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의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

## II.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

### 1. 종합 실적/전망



(BSI 기준 : 100, 전 분기 대비)

분 기	2020년	2021년				2022년				2023년		
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
실적지수	83	78	94	78	99	71	76	67	69	66	82	-
전망지수	67	72	111	105	98	85	101	65	84	71	93	85

#### ■ 2023년 3/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(BSI; Business Survey Index) : '85'

○ 2023년 3분기 전망지수는 전 분기(93) 대비 8p 하락한 85를 기록, 2022년 2/4분기 (101) 이후 5분기 연속 기준치(100)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주요국의 금리 변동성 확대와 수입물가 상승, 원자재 수급 불안,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소비 회복세 둔화 등이 제조업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여, 전망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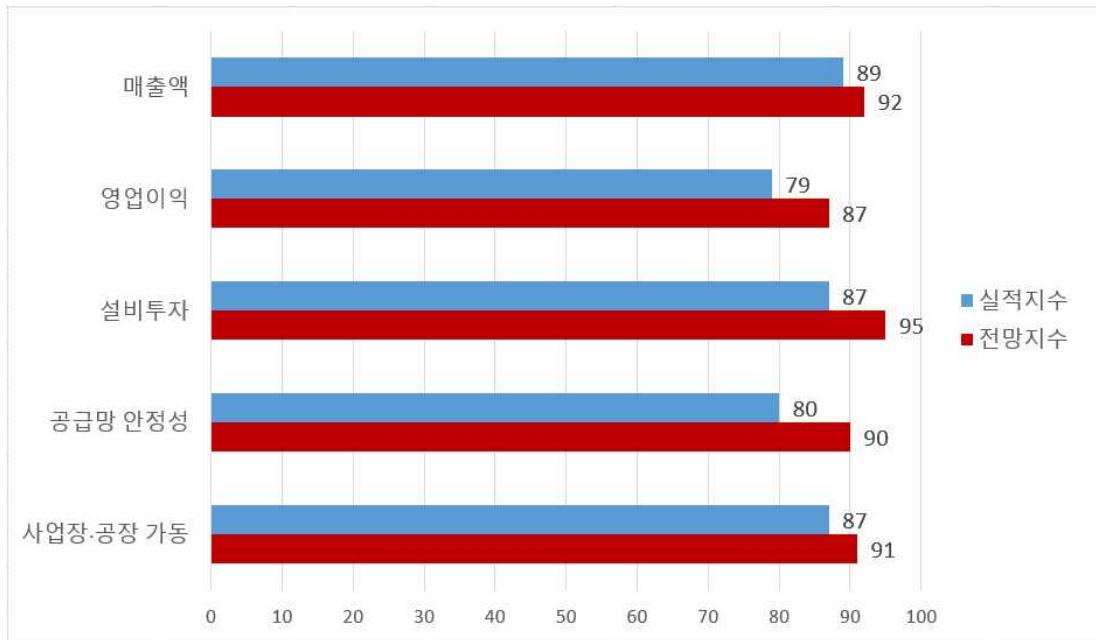
- 경제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이 산재해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을 타개할 만한 뚜렷한 경기회복 모멘텀이 부재하여, 지역 제조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부정적 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■ 2023년 2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: '82'

○ 2023년 2분기 실적지수는 전 분기(66) 대비 16p 상승한 8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, 여전히 기준치(100)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반도체 업황 개선, 미중갈등 해소 등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하락세였던 실적지수가 상승 반전하며 안정세를 보임.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, 원자재가 변동성 및 고금리 등 불안 요소가 많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명확함

2. 부문별 실적/전망



(BSI 기준 : 100, 전 분기 대비)

부 문	매출액	영업이익	설비투자	공급망 안정성	사업장·공장 가동
실적지수	89	79	87	80	87
전망지수	92	87	95	90	9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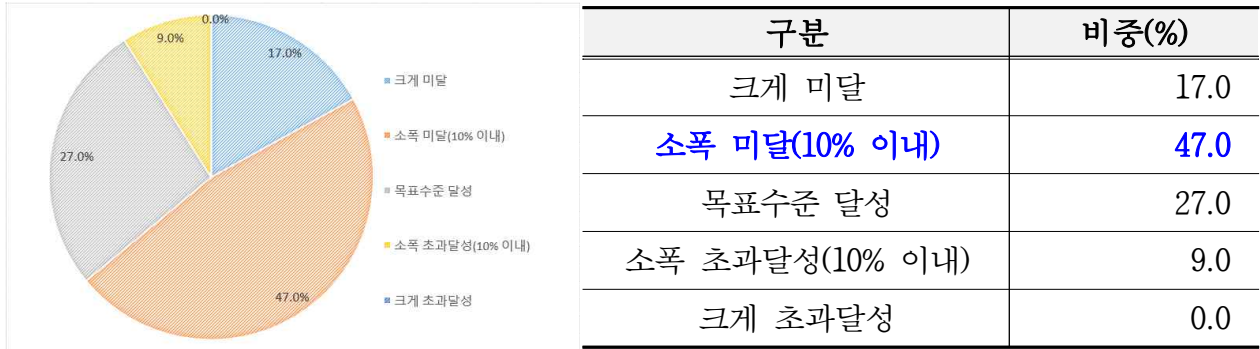
○ 2023년 2/4분기 부문별 실적지수 집계 결과, '매출액(89)', '영업이익(79)', '설비투자(87)', '공급망 안정성(80)', '사업장·공장 가동(87)'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

○ 2023년 3/4분기 부문별 전망지수 집계 결과, '매출액(92)', '영업이익(87)', '설비투자(95)', '공급망 안정성(90)', '사업장·공장 가동(91)' 모든 부문에서 전 분기의 실적지수 대비 높으나, 기준치(100)를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
### III. 기타 조사

#### 1. 경영실적 목표 달성 여부 및 영향 요인

##### (1) 경영실적 목표치 달성 여부



○ 올해 초 계획한 목표 대비 상반기 실적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, ‘소폭 미달 (47.0%)’, ‘목표수준 달성(27.0%)’, ‘크게 미달(17.0%)’, ‘소폭 초과달성(9.0%)’ 순으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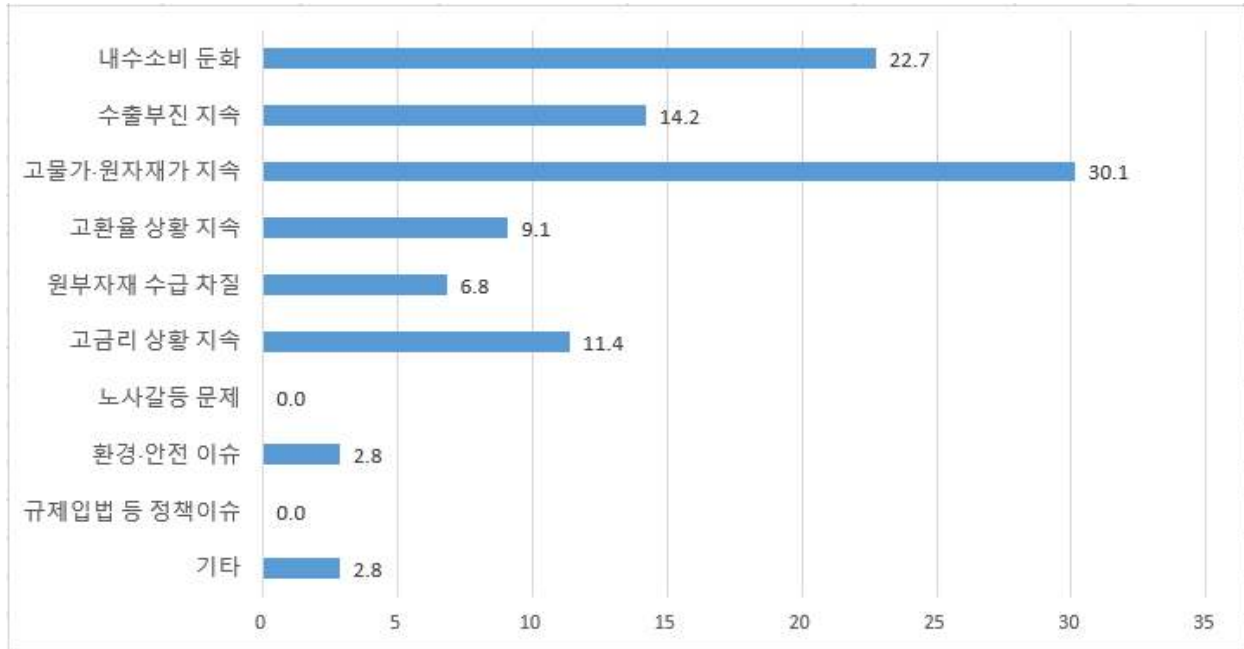
##### (2) 경영실적에 영향 미친 국내외 요인(복수응답)



○ 상반기 경영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친 국내외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4.5%가 ‘내수시장 경기’를 꼽음

○ 뒤를 이어 ‘수출시장 경기’와 ‘원자재 가격’을 꼽은 비율이 18.5%, ‘고금리 상황 (10.1%)’, ‘고환율 상황(4.2%)’ 등의 순으로 응답함

(3)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 
(중복선택)



구분	비중(%)
내수소비 둔화	22.7
수출부진 지속	14.2
<b>고물가, 원자재가 지속</b>	<b>30.1</b>
고환율 상황 지속	9.1
원부자재 수급 차질	6.8
고금리 상황 지속	11.4
노사갈등 문제	0.0
환경, 안전 이슈	2.8
규제입법 등 정책이슈	0.0
기타	2.8

○ 하반기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는 ‘고물가, 원자재가 지속(30.1%)’, ‘내수소비 둔화(22.7%)’, ‘수출부진 지속(14.2%)’, ‘고금리 상황 지속(11.4%)’ 등으로 응답함

## 2. 코로나 사태 전·후 수출 변동

### (1) 수출 품목 및 물량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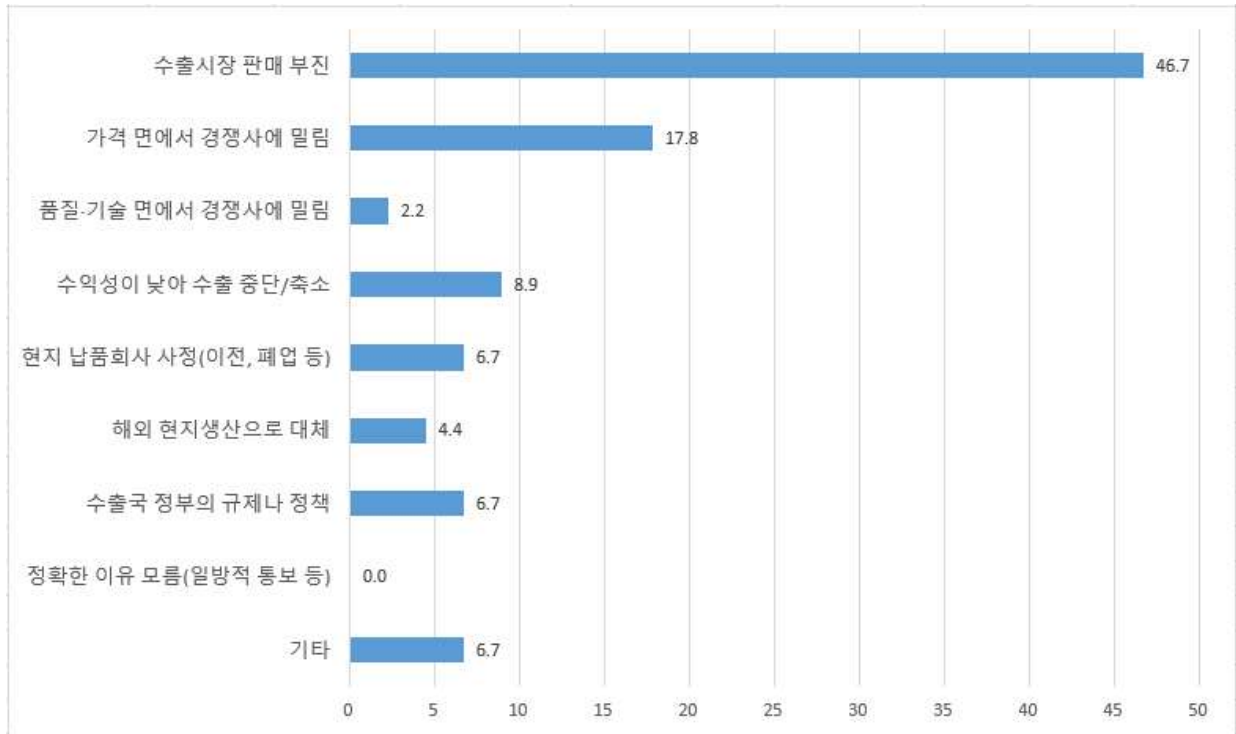
수출이 중단된 품목	없다			86.2%	
	있다				13.8%
		품목	부품(중간재)	0.0%	
			원자재, 소재	42.9%	
			기계, 설비	0.0%	
			완제품(소비재)	57.1%	
			기타	0.0%	
		국가	중국	50.0%	
			미국	0.0%	
			일본	16.7%	
			인도	0.0%	
			베트남	0.0%	
			아세안	0.0%	
EU	16.7%				
남미	0.0%				
기타	16.7%				
새롭게 수출하기 시작한 품목	없다			87.9%	
	있다				12.1%
		품목	부품(중간재)	42.9%	
			원자재, 소재	0.0%	
			기계, 설비	0.0%	
			완제품(소비재)	57.1%	
			기타	0.0%	
		국가	중국	0.0%	
			미국	25.0%	
			일본	0.0%	
			인도	0.0%	
			베트남	12.5%	
			아세안	0.0%	
EU	50.0%				
남미	0.0%				
기타	12.5%				

수출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품목	없다			50.0%	
	있다			50.0%	
		증감	증가한 품목 있음		34.4%
			감소한 품목 있음		65.6%
		품목	부품(중간재)		14.3%
			원자재, 소재		10.7%
			기계, 설비		7.1%
			완제품(소비재)		67.9%
			기타		0.0%
		국가	중국		21.6%
			미국		16.2%
			일본		5.4%
			인도		0.0%
			베트남		8.1%
			아세안		16.2%
EU			29.7%		
남미			0.0%		
기타		2.7%			

- 수출이 중단된 품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13.8%가 ‘있다’라고 답하였으며,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‘완제품(57.1%)’, 국가는 ‘중국(50.0%)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
- 새롭게 수출하기 시작한 품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12.1%가 ‘있다’라고 답하였으며, 해당 품목으로는 ‘완제품(57.1%)’, 수출국은 ‘EU(50.0%)’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됨
- 물량 변동한 수출 품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0.0%가 ‘있다’라고 답하였으며, ‘증가’가 34.4%, ‘감소’가 65.6%를 차지함.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‘완제품(67.9%)’이 가장 많으며, 국가는 ‘EU(29.7%)’, ‘중국(21.6%)’, ‘미국/아세안(16.2%)’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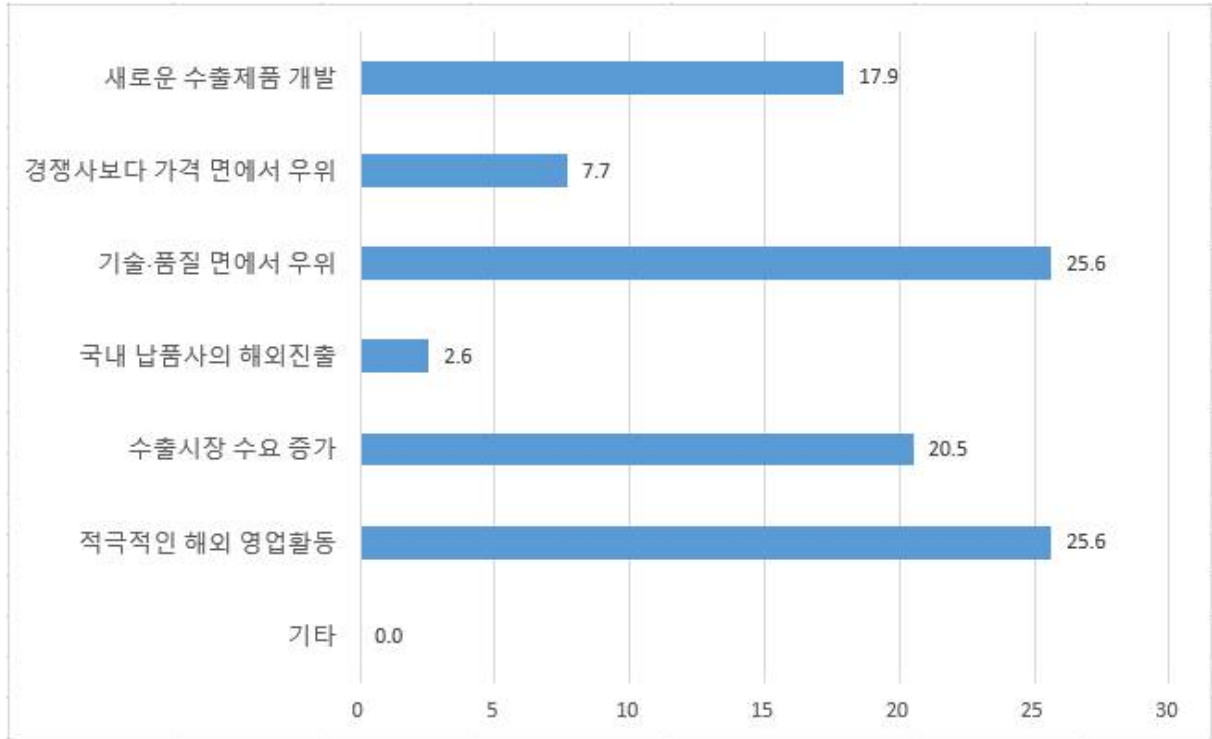
## (2) 수출 중단 또는 감소 이유(복수 응답)



구분	비중(%)
<b>수출시장 판매 부진</b>	<b>46.7</b>
가격 면에서 경쟁사에 밀림	17.8
품질, 기술 면에서 경쟁사에 밀림	2.2
수익성이 낮아 수출 중단/축소	8.9
현지 납품회사 사정(이전, 폐업 등)	6.7
해외 현지생산으로 대체	4.4
수출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	6.7
정확한 이유 모름(일방적 통보 등)	0.0
기타	6.7

○ 수출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6.7%가 ‘수출시장 판매 부진’을 꼽았으며, 뒤를 이어 ‘가격 면에서 경쟁사에 밀림(17.8%)’, ‘수익성이 낮아 수출 중단 및 축소(8.9%)’, ‘현지 납품회사 사정(6.7%)’, ‘수출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(6.7%)’ 등으로 응답함

### (3) 수출 증가 또는 새롭게 시작한 경우 계기(복수 응답)



구분	비중(%)
새로운 수출제품 개발	17.9
경쟁사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	7.7
<b>기술, 품질 면에서 우위</b>	<b>25.6</b>
국내 납품사의 해외진출	2.6
수출시장 수요 증가	20.5
<b>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</b>	<b>25.6</b>
기타	0.0

○ 수출이 늘었거나 새롭게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각각 25.6%가 ‘기술, 품질 면에서 우위’와 ‘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’을 꼽았으며, 그 뒤로 ‘수출시장 수요 증가(20.5%)’, ‘새로운 수출제품 개발(17.9%)’, ‘경쟁사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(7.7%)’ 등으로 응답률을 기록함